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3장 1-10절

날짜: 6월 14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의 아들들은 목숨을 내걸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가봤자 정탐꾼으로 몰려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막내 베냐민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두려운 길이었지만, 곡식은 애굽 땅 요셉에게만 있으니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총리 앞에 서자, 요셉은 감격하여 청지기에게 큰 잔치를 준비하라 명하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요셉은 오직 사랑으로, 가족들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지극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아 들어가는 형제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전에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자신들을 억류해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는 음모라 여기며 벌벌 떨입니다. 총리는 사랑으로 잔치를 베푸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나귀를 빼앗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억측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히 용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내 감정과 죄의식만 붙잡느라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요셉임을 단번에 밝히지 않고, 형제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눈치채고 알아듣기를 기대하며 수많은 암시를 던집니다. 밥을 먹이는데 일꾼들이 형제들을 첫째부터 막내까지 정

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음식을 나누어 줄 때는 베냐민에게만 다른 이보다 다섯 배나 더 줍니다. 이토록 명확한 암시들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속에 집착되어 있는 두려움과 내 생각에 갇혀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행하고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 즉 이미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라고 주신 하늘의 양식이자 선물입니다. 나를 쳐다보고 내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의도를 믿고 "아멘, 이 완전한 의인의 신분은 내 것입니다!" 하고 그냥 받아 누려야 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내 느낌만 붙잡고 있으니 둔하고 눈치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지은 죄를 눈물 흘리며 뉘우쳤다가 내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우는 것은 종교적인 반성이요 양심의 가책일 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 된 상태 그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백날 노력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왕 노릇하려는 무서운 원수, 즉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참된 복음이 내 영혼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질병, 그리고 도무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별하 시려는 주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 내 육신이 편안하고 만사가 다 잘 풀린다면 인간은 절대 예수를 찾지 않고, 세상 정욕에 취해 살다가 그대로 묘지로 직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과 환경을 사정없이 깨뜨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복된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한 생명의 선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손길이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암시라는 것을 눈치채야 하는 절호의 계기입니다.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겉으로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예배당 문 밖에 세워두고 온갖 신학적 의식과 제도, 돈과 욕심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들이 조직해 놓은 단체가 아닙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지으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깊은 잠을 통해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온 참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헛세월을 보낼 신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 달려 피 흘리시던 분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고, 내 생각에서 나온 육신의 종교적 기도를 당장 끝장내야 합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과 연합된 온전한 자녀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만을 온 삶으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Recognizing God's Hints of Love and Truth



Passage: Genesis 43: 1-10 (ESV)

Date: June 14, 2026

Pastor: Dong Suk Chung

Core theme: God places us into challenging environments to lead His children into a posture of deep repentance and revelation, focusing on Him and not on our self-induced worries. Just as Joseph repeatedly provided hidden signs of his identity and underlying affection to his brothers, our Lord constantly surrounds us with the "hints of love and truth," waiting for us to lay down our anxieties and perceive His true nature.

As the famine intensified in the land of Canaan, Joseph's brothers risked their lives to go back to Egypt. Going back meant they were forced to bring Benjamin, their youngest brother, and face the threat of enslavement. However, since grain could only be found in Egypt under Joseph's authority, it was their only way to survive. Yet beneath all of this drama lies a profound spiritual truth: the one they fear is the very one who loves them most.

When they arrive, Joseph orders his servants to prepare a lavish feast for them. However, the brothers do not experience this invitation as grace; instead, they panic and fear that they will be punished. This

mirrors the spiritual state of many believers today. Despite hearing the gospel—that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Jesus has totally forgiven our sins and made us new creations—we often remain enslaved to a heavy consciousness of guilt and fear, mistaking God's invitations to feast in fellowship as impending judgment.

Throughout the feast, Joseph dropped heavy clues about his identity. He asked deeply tender questions about their elderly father, precisely arranged the 11 brothers around the table from the oldest to the youngest, and gave Benjamin five times the portion of anyone else. Every gesture was a clue, an invitation to see who he really is. Yet, because the brothers were entirely consumed by their internal panic and fixated on their own perceived guilt, they completely missed out on recognizing these hints of love.

Joseph's deepest desire was to reveal himself to them, restore his family, and provide for their every need. Yet he held back because a premature reunion would prevent what they truly needed: genuine repentance and transformation. If Joseph had rushed to embrace them the moment they arrived, they would have celebrated and a genuine inner transformation could not have taken root in his brothers.

The heart of the message was a clarifying word about repentance. Biblical repentance is not simply feeling sorry for individual sins committed day after day—that cycle has no end. True repentance is a turning: a recognition that the self corrupted by the fall, the self that made itself its own god, has already been put to death in Christ. Paul's declaration that he "dies daily" was not about endless guilt but about a continual dying to the old nature and rising in the new. The moment

we genuinely accept that the cross dealt with us—not just our mistakes—is the moment the light enters.

The sermon asked us to sit with the uncomfortable truth that we are often no different than these brothers. The gospel is proclaimed at the pulpit every week. We are told: Christ died and rose again, our old selves died with Him and we have been raised as new creations, and we are no longer condemned but are children of God. And still, we leave Sunday services clutching our fear, counting our failures, and living as though we are slaves awaiting punishment. Like Joseph's brothers, we mistake the banquet table for a trap.

The challenge placed before us is to stop being defined by our fear and guilt and to start receiving what has already been given. When hardship comes—illness, failure, loss—rather than viewing it only as misfortune, it may be the very thing that loosens our grip on the world and opens our eyes to what God has been showing us all along. The brothers could not recognize Joseph's love while they were consumed with terror. We cannot receive the gospel while we are consumed with ourselves. God is continually dropping hints of His presence and victory all around us, urging us to step into the reality that our old selves have died with Christ and that we now stand securely as children of God.

May we have eyes to recognize the one who has been revealing Himself to us all along, and may His love cast out every fear. Let us lay down our fears, partake in the abundant spiritual feast He has laid out for us, and step confidently into our identity as new creations in Christ.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